

#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 본 협회 조사부

### 미 국

#### 노스웨스트 항공, 반트러스트 우려 해소 위해 컨티넨탈 항공 지분 매각에 합의

노스웨스트 항공이 컨티넨탈 항공에 대한 지분 대부분을 휴스턴에 소재하고 있는 당해 업체에게 4억 5,000만 달러의 현금을 받고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항공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조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1998년 컨티넨탈 항공의 약 15% 지분을 매입하였던 노스웨스트 항공은 지분의 4분의 3을 재매각할 것이며, 노스웨스트 항공은 단지 컨티넨탈 항공의 7%의 의결권만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노스웨스트 항공은 컨티넨탈 항공의 다수의결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법무부의 제소를 촉발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Douglas Melamed는 "이는 우리가 계속 추구하던 결과이고, 이에 대해 노스웨스트

사와 컨티넨탈 사가 독립된 경쟁업체로 존속하도록 보장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 주 지분 매각에 근접했었는데, 컨티넨탈 사의 회장인 Gordon Bethune과 노스웨스트 사의 사장인 John Dasburg는 제소되기 전날 밤 수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협상은 노스웨스트 사가 주식 매각의 대가로 컨티넨탈 사는 마케팅 제휴를 확대하고, 만일 컨티넨탈 사가 당해 제휴를 종료할 경우 2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11월 6일 합의된 매각가격 - 주당 67달러를 약간 상회함 - 은 이들 항공사가 지난주에 합의하였던 금액과 근사치이나, 새로운 합의는 제휴협정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반면 위반에 대한 벌칙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노스웨스트 사는 컨티넨탈 사의 일부 주식거래에 대해 거부권을 부여할 일련의 특별우선주를 받게 된다. 컨티넨탈 사는 지난 주에는 특별주 부여에 망설였는데 이는 노스웨스트 사가 새로운 주식에는 컨티넨탈 사와 제3자간의 중요한 거래를 저지할 광범한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주식은 보다 제한된 권한만을 갖게 될 것인데, 노스웨스트 사로 하여금 컨티넨탈 사의 다른 주요 항공사와의 매각과 기타 사업상 제휴만을 저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노스웨스트 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노스웨스트 사가 텍사스 주의 투자가인 David Bonderman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왔는데, 이러한 다수의결권은 사실상 당해 산업에서의 경쟁을 제약하는 기업결합이라고 하였다. 정부측 변호사들은 Hood 판사에 대하여 노스웨스트 사로 하여금 당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강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었다.

■ 2000. 11. 6, Financial Times

#### Georgia-Pacific Corp와 Fort James Corp., 기업결합 성사 위해 자산매각에 합의

미국 법무부는 Georgia-Pacific Corp.에 대하여 110억 달러 규모의

Fort James Corp. 취득에 대한 정부 인가를 얻기 위해 상업용 티슈 사업부를 매각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법무부는 11월 21일 이들 기업이 원래대로의 기업결합 계획의 반트러스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목재 및 건축자재 제품으로 더욱 유명한 Georgia-Pacific 사는 Fort James 사의 취득으로 세계 최대의 티슈제품 제조업체가 될 것이다. 당해 기업결합으로 대형 제지회사가 탄생하는데, 이들 기업은 작년엔 300만 톤 이상의 티슈를 생산하였으며 약 25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Fort James 사와 Georgia-Pacific 사는 미국 내 상업용 티슈 생산업체 중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업용 티슈는 야외 티슈로 또한 알려져 있으며 이에는 종이타월, 종이냅킨 및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위한 화장실용 티슈를 포함하고 있다. 작년엔 이들은 합쳐 20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티슈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화장실용 티슈, 종이타월 및 종이냅킨의 66%를 차지하였다.

원래대로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해 뉴욕 주 지방법원에 21일 제기된 소송에서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당해 기업결합이 주요 경쟁업체의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임으로써 상업용 티슈의 제조 및 판매에서의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와 관련기업들은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당해 소송을 해결하게 될 합의안도 함께 접수시켰는데, 법원은 이를 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트러스트국장 대행인 A. Douglas Melamed는 “원래대로의 기업결합은 상업용 티슈제품의 구매자들 - 패스트푸드점 및 기타 식당, 사무용 건물, 공장, 병원, 학교 및 공항 - 예게 가격 상승을 야기하였을 것이었다. 이 자산매각은 이와 같이 중요한 산업에서 경쟁을 보존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애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Georgia-Pacific 사는 미국 2위의 목재제품 생산업체이다. 동 기업은 작년엔 1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에는 6억 7,400만 달러 규모의 상업용 티슈가 포함되었다.

일리노이 주 Deerfield에 본부를 두고 있는 Fort James 사는 미국 최대의 티슈 제품 제조업체이다. 작년엔 Fort James 사는 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에는 13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티슈가 포함되었다. 북미 최대의 티슈 제조업체인 Fort James 사는 1997년 위스콘신 주 Green Bay에 소재한 Fort Howard Corp.와 버지니아 주 Richmond에 소재한 James River Corp. 가 결합하여 탄생한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동 기업은 유명제품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제품군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에는 Quilted Northern, Soft 'N Gentle, Brawny, Mardi Gras, So-Dri, Vanity Fair 및 Dixie가 포함된다. Georgia-Pacific 사의 기존 티슈 제품에는 Angel Soft 화장실용 티슈와 Sparkle 종이타월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Fort James 사의 제품들에 의

해서 압도당하고 있다.

■ 2000. 11. 21, The New York Times

### 미 법무부, 온라인 채권거래에 대해 조사 개시

미국 법무부 관리들이 온라인 채권 및 환거래 형태에 대해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을 조사중임이 11월 30일 밝혀졌다.

법무부 대변인인 Gina Talamona는 “반트러스트국은 온라인 채권거래 산업에서 합작투자사업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온라인 외환거래 산업에서의 합작투자사업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해 조사에 관한 소식은 월스트리트의 딜러들이 분화된 채권시장을 인터넷시대에 맞게 조정하려는 가장 야심찬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메릴 린치, 골드먼 삭스, 모건 스탠리, 디 워터, 셸로먼 스미스 바니 및 도이체 방크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BondBook은 이번 달부터 실시간 온라인 거래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다. 베어 스텐즈, 체이스 맨해튼, JP 모건, 크레디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 레먼 브러더스, ABN 암로, UBS 및 도이체방크를 포함하는 경쟁 합작투자사업인 Market Axess도 곧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ondBook

과 Market Access의 회원사들은 미국 내 회사채 인수의 75%를 처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채권 딜러들은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비난받아 왔는데, 이는 통일된 환율을 통해 유가증권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로 가격설정은 종종 일관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양 합작투자사업의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인터넷 거래형태는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해주고 매입자 및 판매자들에게 다양한 경쟁입찰 및 청약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지금까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여 온 온라인 채권 사이트인 TradeWeb은 아직 법무부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하였다.

Market Access는 회사 내 법률가들의 조언에 따라 논평을 거부했다.

■ 2000. 12. 1, Financial Times

## E U

### EMI, Time Warner,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사업통합신청을 철회

EMI, Time Warner는 10월 5일 오전, 양 사가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했던 사업통합신청을 철회하기 위한 양 사간의 합의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유럽위원회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제출된 거래에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행하지 않았다. 2000년 5월 5일, EMI와 Time Warner는 양 사의 음악제작, 출판사업을 통합하겠다는 합의를 유럽위원회에 신고하였었다.

6월 14일, 유럽위원회는 본 건 사업통합이 전 유럽의 음악제작시장에서 집단적인 지배적 지위, 국내 음악출판시장에서 단독의 지배적 지위 및 온라인 뮤직 및 음악을 기초로 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단독의 지배적 지위를 각각 형성한다고 하는 염려에 관해 상세한 심사를 개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8월 22일부 이의고지서에서 양 사에 대해 제1단계의 의견을 표명했다.

EMI와 Time Warner는 수정안 제출기한인 9월 19일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것은 유럽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위원회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양사와 논의를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EMI와 Time Warner는 당초의 수정안을 대폭 개선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전과 다름없이 이견을 갖고 절차의 최종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합병심사가 이른바 제2단계(상세심사)에 들어갔을 때 수정안의 제의는 본 건에 대한 마감기한인 10월 18일의 1개월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투명성 및 자문위원회의 역할상의 관

점으로부터 유럽위원회는 관례에 의해 당사회사가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정안이 아닌 한 기한 후에 제출된 것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양 사는 5일 오전, 제출된 사업통합의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유럽위원회에 통고하였다. 양 사는 새로운 협의에 이르기 위해 유럽위원회 및 기타의 관계당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을 표명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한 어떠한 새로운 수정안에 대해서도 심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별개 사안인 Time Warner와 AOL과의 합병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동 안건은 10월 24일까지 결정이 내려진다.

■ 2000. 10. 5, 유럽위원회 발표

### 유럽위원회, AOL과 Time Warner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

유럽위원회는 America Online Inc(AOL)으로부터 독일 미디어 그룹인 Bertelsmann AG와의 일체의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제의를 받고 AOL과 Time Warner의 합병을 승인하였다. 제안된 조건은 AOL이 유럽의 음악판권의 주요 원천(source)에 진입(access)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상의 온라인 음악 배

급 및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음악 재생기(player)의 새로운 시장에서 과점화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Time Warner는 텔레비전 네트워크(CNN 및 TNT), 잡지(타임, 피플), 서적출판, 음악, 영화오락 및 케이블 네트워크 등 사업전개를 행하고 있는 세계에서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기업 중의 하나이다. AOL은 미국의 주요한 인터넷 접속제공자(provider)이며, 전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제공자이다. AOL은 유럽에서 주로 2개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통해 사업을 행하고 있다. Bertelsmann과 50대 50의 출자로 설립된 AOL Europe, Bertelsmann 및 Vivendi의 자회사인 Cegetel과 Canal Plus 양 사의 벤처인 AOL Compuserve France이다.

본 건 합병에 의해 TW(Time Warner)브랜드의 콘텐츠(음악, 뉴스, 영화 등)를 AOL 인터넷 유통네트워크를 통해 배급하게 된다. 처음으로 인터넷 수직통합콘텐츠 제공자가 탄생하게 된다. Bertelsmann과의 구조적 결합 및 이번의 계약 체결로 AOL/TW는 Bertelsmann의 콘텐츠 및 특히 장대한 음악 도서관에 보다 유리하게 진입하게 얻게 될 것이다. 이 결과 AOL/TW는 TW와 Bertelsmann 양 사가 약 3분의 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유럽에서의 음악 저작권의 주요 원천을 컨트롤(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디지털 download와 streaming을 포함, 인

터넷상의 온라인 음악 유통시장을 AOL가 지배하는 것을 막는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 AOL/TW는 인터넷상의 음성 파일(file)의 유통조건을 좌우하고 새로운 시장의 감시자가 될 것이다. AOL/TW는 또한 TW 및 Bertelsmann의 음악을 AOL의 음악 플레이어(재생기)인 Winamp에만 적용하고 기타 다른 경쟁사의 음악 재생기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규격으로 구성하게(format)되는 유혹에 끌리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Winamp는 일반적으로 비독점적인 format을 사용하고 있는 타 경쟁사 레코드회사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반대로 타 경쟁사의 재생기는 TW 및 Bertelsmann의 음성 파일을 읽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자신의 음악만을 재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음악재생기의 기술적 제한 때문에 AOL/TW는 독점적 음악 재생기인 Winamp를 강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자에 따르면, 이 합병은 또한 유럽 광지역에 의한 인터넷 접속시장에 관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AOL/TW가 유럽에서 광지역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는 4개월의 검토 결과, TW의 이 비디오, 콘텐츠가 유럽에서는 지배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합병후 기업이 음악 이외의 인터넷 유료콘텐츠 시장(영화, TV프로그램 등)을 지배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합병에 의해 생긴 경쟁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 사는 몇 가지의 약

속을 제의하였다. 이 약속의 최종적인 목적은 Bertelsmann과 AOL의 제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특히 AOL과 Bertelsmann은 Bertelsmann이 AOL 유럽 및 프랑스의 합작벤처인 AOL Compuserve로부터 점차 탈퇴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Bertelsmann의 이탈이 완성될 때까지 AOL과 Bertelsmann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는 잠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특히 AOL Time Warner는 AOL을 통해서만 온라인상 배타적으로 입수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AOL의 음악재생기에서만 배타적으로 연주 가능한 독점적 format이 되도록 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유럽의 대형 미디어회사 특히, 대형음악사인 BMG는 단독으로 새로운 회사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AOL/TW는 음악저작권에 대해 시장지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럽위원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이것이 구경제(old economy)이든 또는 신경제(new economy)에 있어서든 지배적 지위의 형성을 방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합병에 의해 이미 특징지어져 있는 음악시장에서 AOL가 음악 메이저 5개사 중의 3사와 배타적으로 팀을 조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생긴 통합기업이 온라인 음악 배급 및 음악 재생기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위험이 회피되었다”라고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담당은 말했다.

Bertelsmann과의 제휴 해소는 또한 AOL가 주요한 dial-up 접속제공자 중의 하나이며, 또한 TW와 Bertelsmann의 음악콘텐츠를 인터넷 이용에 연결시킴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기 쉬운 영국의 인터넷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다.

Bertelsmann이 AOL Europe 및 AOL Compuserve France의 제휴로부터 이탈할 때까지 Bertelsmann에 관한 조건응락상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한 감시자가 지명하게 된다.

■ 2000. 10. 11,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 이동전화인가  
관련 담합의혹 증폭 -  
네덜란드·오스트리아,  
반트러스트 위반 경고**

제3세대 이동전화 주파수경매에서 전유럽에 걸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은 11월 1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규제당국이 관련규칙 위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증폭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여러 유럽지역 주파수경매에 참가한 입찰업체들간의 관계에 대한 전 유럽적 조사를 개시하라는 압력을 더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쟁당국이 네덜란드 상장회사인 Versatel 사, 그리고 British Telecommunications 사가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경쟁업체인 Telfort 사가 7월에 있는 경매기간중

가진 논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부당행위에 관한 주장이 입증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Telfort 사의 인가 취소와 경매 재 실시 요구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Versatel 사는 27억 유로화(23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 당해 입찰에서 응찰을 철회하였다.

1일 밤 BT 사는 Telfort 사가 입찰 전략을 논의하였다는 사실 - 관련규칙 위반이 되었을 - 을 부인하고 Versatel 사는 입찰과 관련없는 문제에 대한 일상적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당해 회합을 소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Versatel 사는 Telfort 사가 경매 첫 날에 회합을 소집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입찰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의 회합에 관한 사실은 Versatel 사로부터의 별개의 이의제기에 관한 네덜란드 운수성의 심리중에 드러났는데, Versatel 사는 Telfort 사가 당해 네덜란드 경쟁업체를 위협하여 경매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일, 당해 심리를 주재한 Monique de Vries 차관은 당해 회합에 관한 정보를 경쟁당국인 NMA에 전달하였다. 운수성은 NMA가 "이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이유를 발견한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Versatel 사는 Telfort 사에게 응찰 철회 제안을 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당해 회합은 "일상적인 사업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Versatel 사의 제3세대 주파수 인가 획득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1일의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지난 주 이탈리아 제3세대 주파수경매에 참가한 업

체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뒤이은 것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당해 경매가 담합으로 인해 조기에 종료되었는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인 Antitrust의 관리들은 여타 유럽지역의 경매에서도 비밀 합적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Antitrust는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별개의 조사를 벌이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위원회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제3세대 이동전화 주파수인가 경매는 6개 입찰업체들간의 담합으로 인해 정부가 예상되던 200억~500억 실링(123억~308억 달러)보다 낮은 수입을 올리게 될 수도 있다는 규제당국의 우려 속에 11월 3일 개시된다.

오스트리아의 통신산업 규제당국인 Telekom Control Commission은 입찰업체들에게 만일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는 입찰을 중단시키기까지 할 것이라고 입찰업체들에게 경고하였다. 오스트리아 주파수경매 결과는 Telekom Control의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

■ 2000. 11. 2,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항공요금  
'카르텔' 금지 고려중**

유럽위원회는 항공사들이 다수의 유럽연합국가간 항공요금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운수산업에서의 특별협정을 위법화할 것을 고려중이다. EU 반트러스트 관리들은 항공사들의 현재의 일반적 경쟁규범으로부터의 적용제외 - 1991년부터 시행된 - 가 승객들에게는 가격인상을 야기한다고 믿고 있다. 동 위원회는 2001년 6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이러한 특별 적용제외의 효과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후에 항공운수산업 관계자들과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관리들은 관련규칙의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한 가지 선택안은 당해 적용제외를 단 1년간만 연장하여 항공사들이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당해 적용제외는 많은 항공사들에게 사실상 합법적 카르텔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계편 설정(interlining)이라고 불리는 절차에서 승객의 요금을 고정하고 있다. 이는 여행의 각 구간에서 각기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항공권 가격을, 또는 승객들이 예약된 것과 다른 항공사를 통해 여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인상시킨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EU 내 항공편 이용객들의 30%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연계편 설정 제도는 항공시간에 서로의 항공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전체 요금을 계산한 후 관련 항공사들간에 요금을 분할하는 합의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또한 소규모 항공사들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항공요금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후원하에 책정되는데, 이 단체는 39개에 달하는 유럽 항공사들에 대하여 1년에 세번 EU 내의 6,950개 노선 각각의 요금을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가 EU 내 항공요금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믿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항공사들도 물론 장거리 국제항공편에 관해서는 연계편 설정 협정을 체결하나 이는 개별적으로 미국 반트러스트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EU에서의 기존 협정들은 승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정부 및 산업 문제 담당 이사인 Mark Hawes는 "만일 이 제도가 사라진다면 항공권들은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고 일부 승객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일 승객들이 여행 각 구간마다 별도로 요금을 지불한다면 5%의 요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EasyJet이나 Ryanair와 같은 저가경쟁 항공사들은 항공편 연계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asyJet의 대변인인 Toby Nicol은 "우리는 낮은 항공요금을 가져오는 것은 경쟁이며 경쟁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노선구간별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우리 항공기끼리도 노선을 연계하고 있지 않다. 만일 승객이 항공편을 갈아타고자 하면 수하물을 다시 체크인하

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Hawes는 여러 번에 걸쳐 체크인할 필요를 피하는 것과 같은 항공편 연계의 다른 이익들은 만일 적용제외가 사라진다면 보다 제한적인 정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항공운수산업 자유화의 일부로서 항공사들이 요금을 고정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3년 전 화물운임 설정에 관한 유사한 협정을 지지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당시에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작성한 운임표는 시장가격보다 50% 내지 70%까지 높다고 하였다.

■ 2000. 11. 29, Financial Times

### 유럽위원회, Adtranz 매각 조사할 듯

유럽위원회는 12월 6일 캐나다 철도기기 생산업체인 Bombardier가 다이물러 크라이슬러 사의 Adtranz 사업부문을 7억 2,500만 유로화(6억 4,400만 달러)로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한 4개월간의 전면적 반트러스트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기업결합의 결과 탄생하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철도기기 공급업체가 되어 다른 두 주요 생산업체를 큰 격차로 따돌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이물러 크라이슬러 사는 현재 주주들로부터 크라이슬러 사의 사업부문에 대하여 미국에서 법적 소송에 직면하여 있는데, 핵심사업부문인 자동

차에 집중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Adtranz를 Bombardier 사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당해 취득이 8월에 발표되었을 때 Bombardier 사는 이 기업결합으로 인해 자사의 운송부문은 250억 유로화 규모의 당해 산업에서 프랑스의 알스톰 사를 제치고 1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동 기업은 이미 북미 시장에서 선두업체이다.

이들 기업은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관리들은 당해 시장 검토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최근 2년간에 다수의 기업결합이 발생하였다.

4개월간의 제2단계 조사는 유럽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인가하는 대가로 관련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교정책을 얻어내는 것으로 통상 종료된다.

유럽연합의 반트러스트 당국인 유럽위원회는 단지 수 개의 경쟁업체들이 남아 있을 뿐이며 한 지배적인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시장지배력이 집중될 위험이 있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존하고자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지난 달 이들 기업이 제출한 양보안을 고려하기 위해 당해 취득에 대한 결정의 최초 시한을 12월 7일로 연장하였었다.

■ 2000. 12. 4, Financial Times

## 영 국

### 영국 경쟁당국, 금융계 조사에서 RBS 거명

영국 경쟁당국은 11월 8일, 중소기업 대상 금융에 대한 조사에서 최초로 진지한 조치를 취하면서 NatWest 은행의 소유주인 Royal Bank of Scotland를 규모의 독점을 보유한 업체라고 언급하였다. 경쟁위원회는 RBS가 연간 2,500만 파운드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제 당해 은행 - 시가총액으로 유럽 제2위인 - 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동 위원회는 Gordon Brown 재무장관으로부터 당해 시장을 조사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당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대형 은행들이 복합독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또한 검토할 것이다. Lloyds TSB, RBS, HSBC 및 Barclays 은행은 합쳐서 중소기업 관련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내년 여름 전까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나, 가능한 조치로서 상품 수수료 규제, 지역시장 점유율 상한선 설정, 중소기업들의 정보접

근의 용이성 제고 내지 진입장벽 철폐 등이 포함된다고 11월 7일 밝혔다. 그러나 RBS의 최고경영자인 Fred Goodwin은 당해 은행이 거명된 사실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장은 개방된 시장이며 누구라도 진입할 수 있다. 이 시장은 격심한 정도로 경쟁적이다"라고 말하였다.

경쟁위원회에서 발표한 현안 성명은 지난 주의 공청회에 뒤이은 조사의 두번째 부분이다. 그러나 반트러스트 당국이 어떠한 문제를 검토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합 독점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제외하고, 경쟁위원회는 다음의 문제에 관한 회답을 요청하였다.

- 시장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은행 변경을 원하지 않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가.
- 진입장벽이 존재하는가.
- 금년 초 재무성의 Cruickshank 보고서가 결론지었듯이 은행들이 과도한 이윤을 내고 있는가.
- 서비스 비용이 적정수준보다 높은가.
- 불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한편, 4위 규모의 은행인 Barclays는 "우량" 고객에게 저리의 대출로 보답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들에게 이것이 빈곤층을 차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한 후 이를 집행할 것이다. 동 은행은 할인을 결정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에 관

한 자료를 이용하지 않기로 서약하였다. 대신 동 은행은 고객이 계좌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정도에 따라 최고 3%의 이율할인을 제공할 것이다.

■ 2000. 11. 9, Financial Times

## 독 일

### 독일 경쟁당국, BASF 사의 다케다 사 비타민 사업부문 취득 인가

독일 화학기업인 BASF 사는 12월 4일 밤, 일본의 주도적 제약회사인 다케다 사의 비타민 사업부문 인수에 대하여 독일 경쟁당국의 인가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업결합으로 BASF 사는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 사에 뒤이은 2위의 비타민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BASF 사의 미세화합물 사업부문 사장인 Christian Dudeck은 성명을 통해 독일 반트러스트 당국의 인가는 "BASF 사가 비타민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한층 더 중요한 조치"라고 하였다. BASF 사는 미국, 일본 및 다수의 유럽 반트러스트 당국들은 이미 다케다 사의 비타민 사업부문 인수를 인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다케다 사의 비타민 사업부문을 우리의 사업에 통합하는 작업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

하였다. 4일 밤 두 회사 모두 논평을 위해 접촉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업결합 계획에 따르면 BASF 사는 중요한 비타민 대부분의 생산을 위해 비용효율적인 공장의 건설 및 증설에 6억 유로화를 투자할 것이다. BASF 사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동 기업은 전세계 비타민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될 것이며, 지용성 및 수용성 비타민 제품 일체를 갖추게 되고, 고객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비타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BASF 사의 목표는 7억 5,000만 유로화(6억 7,500만 달러)의 비타민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다. 로슈 사는 작년에 36억 스위스 프랑(21억 달러)의 비타민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다케다 사의 일본 내 자산은 합작투자사업에 편입되는데 BASF 사는 이 합작투자사업 지분의 66%를 갖게 된다. BASF 사는 손실을 보고 있던 다케다 사의 비타민 사업부문이 1999년 기록한 매출액인 2억 4,000만 유로화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비타민 매출액에 있어 세계 3위인 다케다 사는 해외 제약사업부문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000. 12. 5, Financial Times

## 멕시코

### 멕시코 당국, Televisa 사의 라디오 방송사 취득 저지하기로

멕시코 반트러스트당국은 12월 5일 세계 최대의 스페인어 방송사인 Televisa 사가 기업결합계획을 완성하여 멕시코 최대의 라디오 방송사가 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연방 반트러스트 위원회는 Televisa 사가 Grupo Acir Communications 사의 27.8% 지분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저지 결정을 내렸다.

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Grupo Acir-Radiopolis 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기업은 1,112개의 Televisa 사 소속 텔레비전 방송국뿐만 아니라 194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갖게 되어 거의 멕시코 전역에서 수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반트러스트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이 소규모 경쟁업체들을 광고시장에서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개월 전에 Televisa 사를 운영하는 Azcárraga 가의 승계서열 3위인 Emilio Azcárraga Jean은 축하 기자회견을 열어 당해 기업결합 계획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인가를 얻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었다.

반트러스트 위원회의 위원장인



Francisco Sánchez Ugarte는 당해 기업결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위원회는 새로운 기업결합이 멕시코에서의 경쟁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Sánchez 위원장은 최근 멕시코의 거대기업들을 공략해 왔는데, 이에는 코카콜라사 및 Telmex 사 및 멕시코 항공독점업체인 Cintra 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Televisa 사가 최근 Sánchez 위원장의 인격에 대한 공격을 방송하면서 그가 멕시코의 가장 강력한 규제 당국의 권한을 가족 일원의 사업을 돕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Sánchez 위원장은 Televisa 사가 자신을 협박하여 동 기업의 확장 계획에 대한 불리한 결정을 막으려 했다고 하였다.

Sánchez 위원장은 "이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우리는 엄격히 법을 준수하면서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촉진한다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규제 당국에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려 하는 국가에서 Televisa 사가 "방송을 이용하여 우리의 결정을 공격하는 것은 규제당국을 압박하여 법을 적용되어야 할 방식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Televisa 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논평을 거부하였다.

■ 2000. 12. 5, The New York Times

## ◆ ◆ ◆ 게 시 판

###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